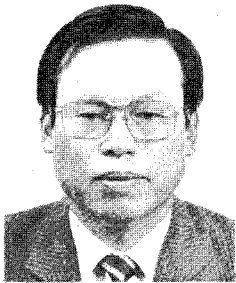


# 양계산물의 안정을 위한 방안

- 양계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



이 태 영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

**협동조합은 농가가 생산한 산물을 공동판매하고 사료, 병아리 등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지금까지 소·군 생산자가 받아왔던 불이익을 대군업자가 누리왔던 대량판매, 대량구매의 잇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생산자가 대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

하기 때문에 힘을 합해 대자본가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협동조합의 발상은 운동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기능은 경제적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간 상호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익단체인 반면 협동조합은 소자본이 모여서 대자본을 형성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제단체로서 소생산자는 대생산자가 누릴 수 있는 잇점을 누릴 수 있고 조합원은 출자나 이용에 구분없이 1인1표주의 원칙으로 누구나 같은 권리행사를 하는 민주적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민이나 양축농가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축협, 농협 등과 같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양계산업이 장기적 불황으로 양계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상된다. 장기적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과잉에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양계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협동조합을 통하여 양계산물의 수급조절을 하면 항상 안정된 물량을 생산 공급할 수 있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양계농가가 생산한 양계산물을 공동 판매하고 사료, 병아리 등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소생산자가 받아왔던 불이익을 대군업자가 누리왔던 대량판매·구매의 잇점으로 전환하여 누릴 수 있다. 실제 양계업에서도 생산농가가 받아야 할 이윤을 중간상인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생산농가가 차지해야 할 이윤

을 환수할 수 있어 양계생산농가에는 커다란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 2. 협동조합의 기능

협동조합은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조합은 생산에 치중하며, 업종조합은 유통부문에 많이 치중하게 된다. 업종조합인 양계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주로 유통분야에 치중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을 어떻게 값을 더 받아주느냐 하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대자본이 형성되어 농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계란의 선별, 액란저장, 가공 대량수요처공급 등의 유통과정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들어 파란이나 소란 등은 수요처가 각각 달라 농가 개개인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품으로 판매하지 못하지만 협동조합이 운영된다면 액란시설, 분란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공과정을 협동조합이 참여함으로써 이들을 상품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권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탄생되어 지역별로 생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계란값이 폭락할 때면 대자본을 이용하여 수매를 통한 저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육계도 물량이 많이 생산되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면 저장해서 값이 비쌀때 팔면 결국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고 가격의 폭락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받는 피해도 대단히 크다. 소비자를 위해서

도 협동조합설립은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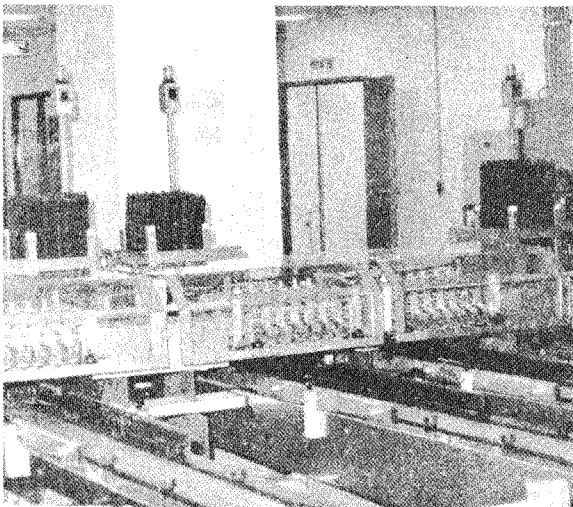
축산물(식품)은 가격이 올라감으로 생산자가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다. 경기는 일정한 주기로 변동된다. 계획적인 생산으로 가격이 꾸준히 생산비를 보장해주며 유지되어야지 가격의 진폭이 크면 장기적으로 산업이 불안정해져서 생산자들이 종국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어느 산업이건 가격의 진폭이 커지면 대자본이 참여를 하게 된다. 대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초기단계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1~2년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약자들을 쓰러뜨려 독점적 시장을 확보한 후 값을 올려서 대자본가만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대자본에 대항하는 기능도 가지지만 대자본의 참여를 방지하기도 한다.

## 3.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방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보다는 조합자체의 수익을 위한 사업이 많았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써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장을 중앙회에서 임명한다든지 조합의 간부직원도 중앙회의 임명제로 해왔기 때문에 조합원 이익을 위한 운영보다 조합의 경영을 위한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역시 민주화추세에 부응하여 조합장도 직접 조합원 중에서 한다면 조합의 일이 자기의 이익과 직접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알찬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모순점을 앞으로 조합원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법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의 협동조합이 조합의 경영을 위한 조합이었다 하여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되겠다. 조합의 재산이 늘으면 늘어나는 재산은 조합장이나 조합직원의 재산이 아닌 조합원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조합원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장이나 조합직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관이나 중앙에서 주도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관이나 중앙에서 통제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완전히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되





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외부에서 원조를 받으면 조합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 협동조합이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여 생존을 계속하려 한다면 자생력을 잃게 되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 조합은 시작단계부터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정부의 보조나 빚으로 운영해 나가려 한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운신이 어렵듯이 협동조합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나 중앙의 보조를 받지않고 운영 하는 조합이 있는데 이처럼 처음부터 자기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야 자기 주장을 바르게 펼 수 있고 조합원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나 중앙에서 만들어주면 이용하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누군가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주객이 전도되어 자생력이 없어 조합원을 위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누구라도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양계협동조합같은 업종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50명 이

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준비 작업부터 실시하여 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그러나 조합조직 요령이 단순치 않아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느껴 도움을 요청할 경우는 축협 등 선발협동조합에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초창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법을 집행하면서 운영해야 자생력을 키워서 강한 협동조합이 된다. 요즘 양계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채란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육계분야도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로 협동조합이 있어야 자기 전문분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초창기에 수가 적으면 채란업자와 육계업자가 모여서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1지역 1조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합원자격을 가진 적정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조합을 만들었다면 정부는 조합설립허가를 해줄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일찍 설립되었다고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 자본이 구성되어 경제단위를 이루게되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도와줄 의무가 있기때문에

농민이 자기경제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제한하기 보다는 설립허가를 해주고 업무구역을 조정해주면 된다.

오늘날은 농민의 지식이 향상되어 지난날처럼 정부가 농민을 지도하기 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농민의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이제는 농민들도 정치, 경제,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협동조합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 전체의 이익을 생각치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협동조합은 운영할 수가 없게 된다. 조합의 3대원칙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구매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개인이익을 너무 추

구하지 않고 협동하여야 한다. 자기의 작은 이익을 억제하고 지역발전이나 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노력해야만이 협동조합도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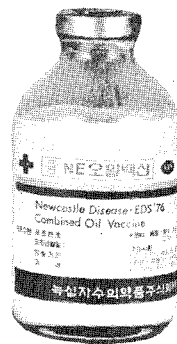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경제가 고도로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개인화 추세로 변화되어 가고있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적은 돈을 벌기위해 조합을 이용하였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 돈의 가치가 떨어져 조합의 이용이 위축될 수도 있다. 조합원이 개인화되어버리면 조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조합은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려면 조합원의 협동심과 더불어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사리사욕을 떠난 조합장 즉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합장이 있을 때 협동조합은 발전할 것이다. **양재**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  
매  
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 · EDS  
혼합오일백신



NE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31-29

☎ 582-9181-5

본사 · 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⑧3423/4